



# Korean-Canadian APEC CBC Exchange Program 을 다녀와서

이 응 훈 / (주)피오씨코리아 대표



이 응 훈  
(주)피오씨코리아 대표  
협회 대외협력분과위원  
경영지도사(19기 회장)  
APEC CBC 2기

이 글은 필자가 APEC CBC 과정의 일환으로 2004년 8월 16일부터 18일 까지 Canada의 Acadia University 에서 개최된 한-카 APEC CBC 교환프로그램을 참가한 후기이다. Acadia University는 Canada 최고 명문사립대학중의 하나이며 Nova Scotia주에 있는 인구 2000 명 정도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작은도시 Wolfville에 소재하고 있다. 필자는 먼저 APEC CBC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 후 지면이 허락하면 캐나다, Nova Scotia, Wolfville, Acadia University를 소개한 후 APEC CBC 교환프로그램, Canada의 APEC CBC 교육 현황 및 한국 APEC CBC가 개선하여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1. APEC CBC

APEC CBC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계시장에서 APEC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PEC 역내에 질 높은 비즈니스

카운슬링 서비스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APEC 기구와 APEC CBC 프로그램이 창설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1989년 11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 1차 각료회의가 열림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창설 목적은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제협력, 기술협력, 금융협력등이다.

APEC 은 싱가포르에 상설 사무국이 있으



며(93.2.12 개설), 현재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 총21개국이다.

1997년에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각료들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카운슬러를 교육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PEC 역내 중소기업 카운슬링의 질을 향상시키고 카운슬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1년 상하이 회의에서 APEC 각료들은 캐나다를 주축으로 한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의 제안을 받아들여 컨설턴트, 카운슬러 및 기타 기업 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APEC 국제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 카운슬러 국제 교육기구 Network" (APEC IBIZ)의 창설을 승인하였다.

## 2. APEC CBC Exchange Program의 목적

APEC CBC Program을 가장 먼저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와 한국의 교육생 교류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고 APEC CBC 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며, APEC CBC 자신은 물론 APEC CBC의 client인 중소기업들에게도 국제 교역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본 교환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 3. Program 참가자

제1회 APEC CBC Exchange Program의 참가

자 중에는 Canada의 Consulting 협회와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한국 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 엄윤호 사무처장과 중소기업청 양희영 사무관이 합류하였으며 APEC CBC 교육 평가관 2명 APEC CBC Learner Counselor 21명 외에 Observer로 참가한 APEC CBC 1기 회장인 강길원 지도사, 같은 APEC CBC 1기 연건희 지도사, 협회 지원요원 곽홍주 부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청: 양희영 사무관
- 컨설턴트 협회요원: 엄윤호 사무처장, 곽홍주 부장
- APEC CBC 교육 평가관: 한경석 숭실대 교수, 차상란 아트경영자문 대표
- APEC CBC 교육생: 21명

단 장: 송갑호

부단장: 김관호

단 원: 강봉구, 강창수, 강현화, 길성도, 김하영, 나은희, 변정도, 서정렬, 손제민, 송상기, 염윤철, 이강영, 이응훈, 장성기, 전성열, 조철행, 지유한, 최상렬, 최휘정

Observer: APEC CBC 1기 강길원, 연건희

## 4. Canada 소개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998만 km<sup>2</sup> 로 한반도 면적의 약45배에 달하지만 총인구는 약 3천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세계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민정책도 주마다 다르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도 주목할 만

한 변화가 일어났다. 2차 대전 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국이나 동유럽에서 왔지만 1945년 이후 서유럽, 아시아, 남미, 카리브제도 등에서 이민자들이 급증 하였고 이들이 캐나다의 문화를 다양하고 윤택하게 만들었으며 근대국가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성숙하여감에 따라 점차로 국제적인 평판과 신망을 얻었다. 현재는 아시아계 이민이 급격히 늘어 전체이민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계가 25% 중남미 14% 기타 11% 순이다.

1 인당 GDP는 CD\$ 32,900 (US\$27,562) 이고 수도는 오타와이며 다른 주요도시로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오타와, 에드먼튼, 캘거리등이 있다. 공식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종교는 카톨릭이 46.5%, 개신교가 41.2%, 기타 11.1%이다. 정부형태는 10개 주(州)의 연방으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광활한 면적을 가졌지만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남쪽 약 300km폭의 동서로 뻗은 띠 모양의 땅에 약 90%가 살고 있고 그 북쪽으로는 사람이 살기 힘든 툰드라와 극지방이 이어진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은 한국과 같으나 위도가 높아 더 춥다. 겨울철 산악 지방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이 많다. 겨울철에 여행하는 경우는 방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8월에는 여름 옷차림이면 되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겉옷이 필요하다.

### 캐나다의 역사

캐나다의 원주민은 약 3만년 전 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알라스카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하여

이주해 왔다고 믿어진다. 그들 중 일부는 캐나다에 정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남하 하였다. 유럽인 탐험가가 도착했을 때 캐나다에는 환경에 따라 유목 생활을 하거나 정착 생활을 하는 사냥꾼, 어부, 농부 등 다양한 범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원주민과 유럽인 간의 최초의 접촉은 아이슬란드의 노르웨이인이 뉴펀들랜드 섬에 잠깐 정착했던 1000여년 전의 일이다.

동양의 풍요로운 시장으로 통하는 새 루트를 찾던 프랑스와 영국 탐험가들은 북미 바다를 끊임없이 공략하였다. 북미는 불가피하게도 영국과 프랑스 간에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1759년에 퀘벡 시가 함락된 후 파리 조약에 따라 생 삐에르(St. Pierre)와 미끌롱(Miquelon), 그리고 뉴 펀들랜드 섬 연안을 제외한 미시시피 동부의 모든 프랑스 영토가 영국에 귀속되었다.

북미의 영국 식민지-캐나다(현재 온타리오, 퀘벡), 노바 스코셔, 뉴 브랜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 펀들랜드-들은 독립적으로 성장, 번영하였다. 1867년 7월 1일 Canada East, Canada West, 노바 스코셔, 뉴 브런즈윅 등은 모두 영국 북미조례의 협정하에서 캐나다 자치령으로 합쳤다. 새 국가의 정부는 총독(영국 국왕의 대리인)과 하원, 상원으로 구성된 국회를 가진 영국의회 제도를 토대로 하였다. 국회는 국가적 관심사(세금 및 국방)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소유권, 시민권, 교육에 대한 입법권은 주의회에 주어졌다.

캐나다는 연방이 되자마자 서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1858년부터 이미 국왕의식민지가 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과

철도 연결을 약속받고 1871년에 캐나다 자치령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뉴펀들랜드는 1949년에 캐나다의 10번째 주가 될 때까지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

독립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의 통과로 영국으로부터 캐나다의 헌법 자율성이 주어졌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2차 대전중에 연맹군을 파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캐나다를 공황에서 건져 올렸다. 전쟁의 부산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캐나다는 G7국가중의 하나로 발돋움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캐나다 경제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가족 수당, 연금 보장, 일반적인 의료 및 실직보험 등의 정부 사회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캐나다인들에게 높은 생활 수준과 바람직한 삶의 질을 제공하였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2차 대전 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국이나 동유럽에서 왔다. 1945년 이후 서유럽, 아시아, 남미, 카리브 연안 섬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문화를 다양하고 윤택하게 만들었다. 국가가 개발되고 성숙됨에 따라 국제적인 평판과 신망을 얻었다. 캐나다는 현재 UN의 주요한 모든 평화 유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Nova Scotia(노바스코샤)

불어로 "뉴스코틀랜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바스코샤는 아직도 옛 켈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주수도는 헬리팩스, 면적은 52,840km<sup>2</sup>, 인구는 약 923,000명이다. 노바

스코샤에서는 동서남북 어느쪽으로 가든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바다를 볼 수 있게 된다. 바다야말로 노바스코샤 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의 수도이며 대서양 연안의 거대한 천연 항구중 하나인 헬리팩스로부터 펀디만에 있는 아나폴리스 로얄까지 곳곳에서 느낄수 있으며 선박과 항해는 노바스코샤 주의 중심산업이었다.

돛단배 시절 가장 빨리 달린 배로 알려진 블루노스호가 이 곳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본떠만든 블루노스?를 헬리팩스 항구에서 타 볼 수 있다.

### Wolfville 과 Acadia University

Wolfville은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Fundy만(灣)의 Minas Basin(內灣)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학도시이다. 도시라기 보다는 마을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는 곳으로 주민들은 매우 순박하고 친절하며 농업, 어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Minas Basin의 조류(潮流)는 지구상의 모든 강(江)의 흐름을 합친 것과 같다. 이곳은 또한 철새의 도래지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Canadian Lobster의 원산지이며 전세계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Acadia University는 학생수는 3,600명 정도이고 훌륭한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Canada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우리가 사용한 기숙사 시설과 학교식당도 거의 호텔 Buffet 수준이다. 강의실과 기숙사의 전산망도 완벽하였으며 기숙사의 취사 시설도 모든 종류의 음식을 장만하기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다.

## 5. 일 정

### ① 한-가 APEC CBC Exchange Program의 공식 일정

- 8월 14일 (토): 서울 출발, Vancouver 경유 Toronto 도착
- 8월 15일 (일): Toronto 출발 Wolfville Acadia University 도착
- 8월 16일 (월): Workshop
- 8월 17일 (화): Workshop
- 8월 18일 (수): 현지 중소기업 방문
- 8월 19일 (목): Acadia University 출발, Toronto 경유 Vancouver 도착
- 8월 20일 (금): Vancouver 관광
- 8월 21일 (토): Vancouver 출발
- 8월 22일 (일): 서울 도착

### ② 상세 일정

2004. 8. 14(토)

협회 강의실에서 오전 강의 수강후 협회 건물 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올라 박양호 회장님과 협회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Air Canada 비행기에 올랐다. Vancouver를 경유하여 Toronto 에 도착후 여장을 풀었다.

2004. 8. 15(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잠을 내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 하였다. 셀수도 없이 많은 무지개가 걸려있는 나이아가라는 다시 보아도 정말 장관이다. 배를 타고 폭포 밑에까지 이르니 웅장한 낙수 소리와 바람과 소나기를 동시에 만난 것 같은 몰방

울 세례가 우리를 압도 하였다. 관광객들이 여기 저기서 탄성을 연발 하고 있었다. 나이아가라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Toronto 공항으로 가서 Halifax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Halifax에 도착하니 선발대로 와 있던 한경석 교수님(평가관)과 이강영 지도사가 Canada 측 host 인 Acadia 대학의 Chris Pelham 교수를 비롯한 ACSBE (Acadia Center for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약 한시간 반만에 Acadia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ACSBE 직원들이 우리 팀을 위하여 환영파티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모두가 친절하고 순박하여 우리나라 시골 고향마을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져 긴 여정으로 인한 피로가 일시에 가시는 것 같았다. 기숙사 시설은 호텔수준이었고 무엇보다도 넓고 안락한 휴게실과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방이 맘에 들었다. 이정도의 주방시설과 휴게실이면 100여명 정도의 파티는 문제도 아닐 것 같았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다.

송갑호 회장이 우리가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캐나다 팀에 전달하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였다. 우리도 ACSBE 직원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정성이 담긴 맛있는 쿠키였다. 송갑호 회장이 제안을 해서 선물을 준비 하였는데 정말 선물을 준비 하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다. 받기만 하고 줄 것이 없었으면 좀 민망 했었을 것이다.

밤이 늦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 파티는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우리의 주특기인소주와 라

면이 등장하고 여기에 밥과 김치 불고기 까지 등장하여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간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친교시간이 계속되었다. 다음 일정을 생각해 아쉽지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취침을 하였다.

2004. 8. 16(월)

아침 6시에 기상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아주 훌륭한 식사였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양한 음식을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었으며 양도 아주 푸짐하였다.

8시부터는 강의실에서 Module 8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Workshop이 진행되었다. 캐나다APEC CBC 교육생 6명과함께 Workshop에 참여 하였는데 각 주제마다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한사람도 줄거나 만전 필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경험을 나누었으며 아주 열심히 교육에 참여 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측 참여자들은 대부분 영어의사소통에 문제가 별로 없었으나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부 참여자를 위하여 필자가 통역을 하였다. 팀별 Group 토론에서도 한국측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측 Learner Counselor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는데 강사인 Elaine과 캐나다 수강생들이 좀 놀라는 눈치였다.

오늘 참석한 캐나다 교육생은 화상으로 원격지에서 교육에 참가한 사람을 포함하여 전원이 소상공인 지원 센터 직원이었는데 한국측 참여자들이 영어가 달려서 그렇지 전반적인 수준은 한 수 위였다. 왜냐하면 한국측 참여자는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지도사 내지는 상당한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반해 캐나다측 교육생은 한국측 교육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나 경력이 적은 사람들 이기 많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성격유형별 특성과 행동양식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사람의 성격을 올빼미형, 사자형, 거북이형, 그리고 암닭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행동양식, 의사소통 방법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저녁에는 Korean-Canadian Food Festival이 있었는데 양측에서 Canada 요리와 한국요리를 직접 만들어 파티를 하였다. 모두가 참여하여 정성 들여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풍성하여 큰 잔칫집 같았다. 한국음식요리는 나은희 여사의 지휘하에 강현화, 강봉구, 최휘정, 장성기, 지유한, 염윤철씨 등이 특히 수고를 많이 하였다. 음식중에는 역시 김치가 최고 인기였다. 나은희 지도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나와 캐나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의 꽃을 피웠는데 나는 러시아계인 David와 러시아의 자유화, 극동정세, 남북한문제 등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 육군 준위 출신인 Ivan과 양국의 군사문제, 징병제도, 골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Ivan 과는 결국 수요일 골프 라운딩으로 이어졌다. Ivan은 APEC CBC 이론교육 200시간의 마지막 6시간 강의가 18일에 있었는데 우리팀과 골프를 치고 싶지만 수업을 빠질수가 없다고 애석해 하면서 특별히 Learning Manager 이며 강사인 Elaine의 허가를 받아보자고 하였다. 나도 Elaine에게 Ivan과 함께 Golf를 칠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아직까지 한번도 교육수강을

하지않은 사람에게 출석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Learner counselor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일이니 관계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물론 다른 Learning Manager 이며 행정책임자인 Sara에게도 부탁을 하여 놓았다. 나중에 Ivan으로부터 허락이 떨어 졌다는 전갈이 왔다.

2004. 8. 17 (화)

오전에 캐나다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캐나다 특허청 직원의 Presentation이 있었고 법령과 정부 규정에 대한 Workshop이 Sara의 지도하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한국측이 준비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과 Canada의 교육생, 평가관, Acadia 대학 교직원, ACSBE 직원 약 60 여명이 참석하였다. 각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이 4 개의 Study group으로 나누어 출국 전에 준비한 내용이다.

Group A:

주제: Socio-economic Climate of Korea and Canada

참여자: 이강영, 손제민, 지유한, 길성도, 최휘정, 최상열

발표자: 이강영

Group B:

주제: Role of Small Business Counselor in Economic Development

참여자: 강창수, 장성기, 강봉구, 강현화, 김관호

발표자: 강창수

Group C:

주제: Cultural Difference

참여자: 이응훈, 송갑호, 서정열, 변정도, 나은희

발표자: 이응훈

Group D:

주제: Human Resources Management

참여자: 조철행 김하영 송상기 염윤철 전성열

발표자: 조철행

Acadia 대학교 Chris Pelham 교수를 위시한 참석자들이 한국측 발표내용과 영어 Presentation skill에 대하여 극찬을 하며 활발한 토론을 하였고 특히 Cultural Difference는 Acadia 대학 교직원 및 교육생 여러명이 Presentation file copy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 있는 주제였다.

오후 5시부터는 현지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가 있었고 이어서 저녁에는 Korean-Canadian Friendship Night가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는 현지 언론의 관심도 끌며 한경석 교수가 대표로 현지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Acadia 대학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현지 중소기업, Canada APEC CBC, 평가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현지 중소기업인 중에는 한국 교민들도 있었는데 뜻밖에 송갑호 회장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송갑호 회장이 마당발임을 또 한번 과시 하였다.

Acadia 대학총장의 환영사, Chris Pelham 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한경석 평가관(송실대교수)의 축사, 송갑호 회장의 답사가 있었다. 송갑호 회장은 답사에서 Korean-Canadian APEC CBC Exchange Program이 너무도 잘 준비되었으며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환대에 대하여 여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누구든지 공사를 불문하고 Canada 측 APEC CBC 요원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를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손제민 지도사는 Dynamic Korean Economy 란 주제로 Presentation 을 하였다.

2004. 8. 18 (수)

이틀간의 강행군후 오늘은 오전 에는 Recreation 오후에는 지역 중소기업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나는 오전 Recreation 시간에는 Golfing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아침 일찍 Ivan과 Paula가 차를 가지고 기숙사 앞으로 왔다. Ivan, 송상기교수가 나와 함께 앞조가 되고 송갑호 회장, 조철행, 강창수, 전성열 지도사가 뒷조에서 플레이 하였다. 빌린채라서 스코어는 별로 안 좋았지만 기분은 상쾌하였고 분위기는 최고였다. 송상기 교수는 어제밤 밤새도록 열띤 토론을 하느라 꼬박 날을 샀는데도 장타에 줄과를 잡아 Ivan과 나의 기를 꺾어 놓았다.

우리는 오후 현지 중소기업 방문 스케줄 때문에 아쉽게도 16번 홀을 마친뒤 Acadia 대학 숙소로 돌아 왔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Sara와 Paul의 안내로 현지 APEC CBC 들의 경영지도를 받는 중소기업인 양어장 1곳, Winery 2곳을 방문하고 Acadia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Canadian Lobster 가 거래되는 시장을 방문하였다. 현지에서 그야말로 신선한 Lobster 요리로 맛있는저녁을 먹었다.

2004. 8. 19 (목)

오늘은 Acadia 대학을 떠나는 날이다. 할리팩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별을 아쉬워하는 Sara가 주변 관광 안내를 자청하여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Halifax 공항을 이륙한 우리는 Toronto를 거쳐 Vancouver에 도착 하였다.

2004. 8. 20 (금)

아침부터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관광에 나섰다. 태평양 바다에 접한 밴쿠버는 인구 180만 명의 서부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토론토, 몬트리올에 이어 캐나다 제 3의 도시이다. 인정미 넘치고친절한 사람들, 깨끗하고 안전한 주위 환경,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을지닌 도시, 웅장한 산과 깊고 푸른 바다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밴쿠버만의 매력을 자아낸다.

Vancouver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30분쯤 걸려서 British Columbia의 주도 Victoria가 있는 Vancouver 섬에 도착하였다. Victoria가 British Columbia 주의 주도가 된 사연은 이 섬이 Canada보다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장차 미국과 Canada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Vancouver섬 영유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Victoria는 1868년 영국 이주민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영국적인분위기와 전통으로 가득찬 곳이다. 아름다운 그림 엽서 같은 빅토리아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에 둘러싸여 빅토리아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온화한

날씨와 적은 강우량으로 쾌적한 빅토리아는 최상의 관광지로 손꼽히며 영국 식민지 시대를 말해주는 역사적 도시이기도 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으며 캐나다 내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고 있다.

빅토리아의 상징인 주의사당, 임프레스 호텔 등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빨간색의 2층버스, 오후의 티타임 등은 강한 영국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빅토리아는 정원의 도시라는 별칭에 알맞게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데 매년 이른 봄에 꽃의 수를 세는 행사가 열린다. 빅토리아 사람들은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인 부차드 가든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부차드 가든은 황폐하게 버려진 폐광을 개발한 것이라 한다. 버려진 폐허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꽃밭으로 개발한 캐나다인들의 idea가 무척 빛나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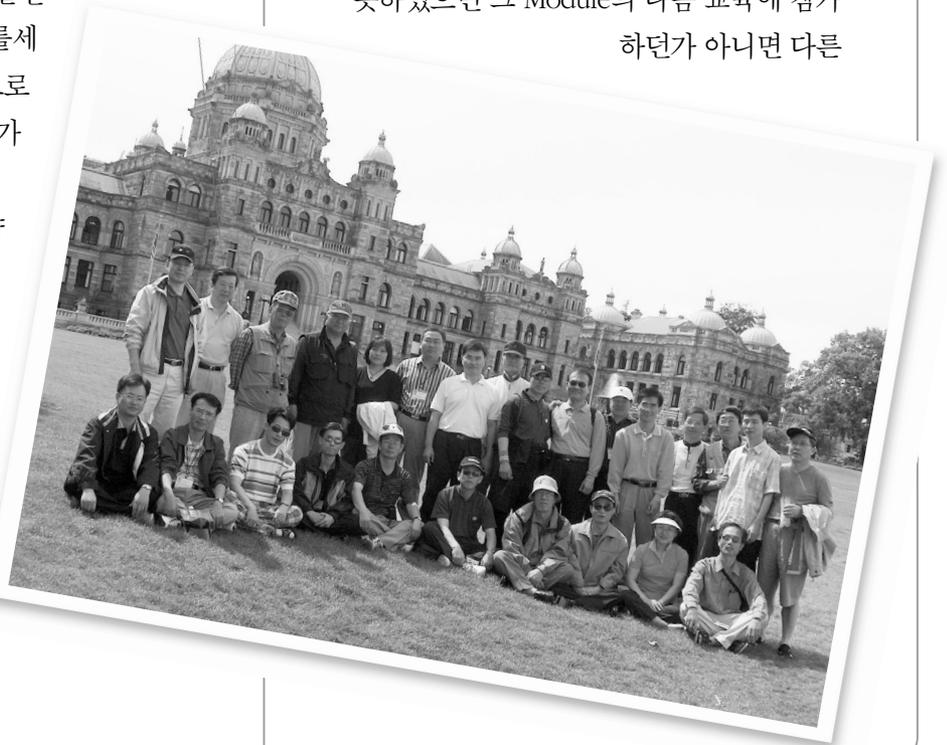
부차드 가든에서 꽃의 향기에 취한 Sentimentalist 젊은 오빠 한 분이 관광버스 출발 시간까지 버스로 돌아오지 못하여 예약된 배를 놓친 우리는 늦게서야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니 이미 12시가 다 되었다.

2004. 8. 21 (토)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Vancouver 공항으로 향하였다. 긴장도 풀리고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물리는 듯 하였다. 서울로 돌아 가면 또 계속 되는 교육과 Workshop, 평가서와 씨름 하겠지...

## 6. Canada의 APEC CBC 교육 프로그램

Canada 의 APEC/EI 인 ACSBE 는 Acadia 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강좌는 Module별로 지역별로 수시로 열린다. 현재까지 배출된 CBC는 36명 현재 교육중인 수강생 약 200명 정도이다. Learner Counselor는 자기의 시간형편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석계를 제출하고 출석을 면제 받는 일엔 아예 없다. 자기사정으로 어떤 Module의 수업을 못하였으면 그 Module의 다음 교육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수강 할 수 있다. 또 필요시에는 화상으로 연결하여 원격지에서 강의를 참석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APEC 규정대로 200시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400시간의 실무 수습을 마치면 된다. 대개의 경우 등록을 하여 자격증을 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Canada의 강사진은 Module 별로 전속 강사가 담당하며, 필요시 특강 형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한다.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지 교육내용과 수준이 동일하다. 전속 강사는 유명인이나 대학교수보다는 APEC CBC가 수행할 Counseling 업무에 밝고 경험이 많거나 처음부터 강사요원으로 철저히 훈련된 사람으로 선발한다.

APEC CBC 교재가 비교적 잘 구성되었기 때문에 강의는 교재중심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강의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 교육생이 참

여하는 토론식으로 진행되므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이해의 폭이 넓고 교육내용을 거의 완전히 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APEC CBC는 Management Consultant와 주관기관이 다르고 교류도 없으며 약간의 영역 다툼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기업/소상공인 쪽으로 특화 되어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깊이가 떨어지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 7. 앞으로 한국 APEC CBC가 개선하여야 할 과제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APEC CBC와 경영지도사 주관기관이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로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양 제도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필자의 소견으로 앞으로 한국 APEC CBC가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APEC CBC의 Positioning 재정립

APEC CBC의 위치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positioning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교육 수준, 교육내용, 강사선정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가) 첫째는 자격증 발급주체가 APEC이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경영 상담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고

나) 둘째는 경영지도사가 전문 지도분야가 있는 컨설턴트 인데 반해 전문분야를 망라하는 경영상담사로서 상호 보완적인 자격관계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이고

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문으로 특화된 경영상담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② 국문 교재의 수정 보완

가) 너무 많은 오역(誤譯)을 바로잡고 학계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나) 또는 영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③ 전임 강사진 양성

가) APEC CBC과정 전문 강사를 양성 또는 위촉하여 전임 강사 강의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게 함으로서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 강사와 수강생 유대를 강화하며

다) 준비되지 않은 부실 강의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④ APEC CBC 교육 담당 보강 또는 Out

Sourcing

가) 협회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APEC CBC 교육 진행과정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으므로

나) APEC CBC 교육 담당을 보강 또는 APEC CBC 교육 진행을 외부 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⑤ 수강생 모집 적극적 홍보

⑥ 교육 프로그램 수정 보완

가) 교육방법을 일방적 주입식 강의가 아닌 토론식 쌍방향 교육 방법으로 전환한다.

나) 교재와 교육내용을 일치 시킨다.

다) 교육내용과 평가내용을 일치 시킨다.

라) 지방 강의를 개설한다.

⑦ 교육비 현실화 및 정부지원

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부합되는 교육과정 이므로 교육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안 강구

나) 교육비 분납방안 강구

다) 교육전 과도한 지원 약속 자제

라) 해외연수비용 분리

⑧ 해외 연수 프로그램 비용 절감 방안

가) 항공 여행 비수기에 실시

나) 호주, 싱가포르 등 타지역 연수가능성 타진

이 글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로 피력한 것으로서 혹시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